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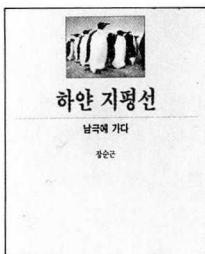
청소년이 읽을만한 책

출판협회 선정 '이 달의 청소년도서' 18종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김낙준)가 선정하는 '이 달의 청소년도서' 91년 12월~92년 3월분으로 18종 20책의 도서가 뽑혔다. 이 달의 청소년도서는 재단법인 한국출판금고(이사장 정진숙)의 지원금으로 구입, 전국 각 지방의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청소년 선도기관·소년원·문화원 등에 골고루 배포된다. 다음은 이 달의 청소년도서로 선정된 책들의 간략한 해제.

하얀 지평선

장순근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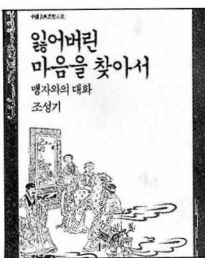
현재 세계 20여개국의 40여 연구기지가 설치돼 있는 '남쪽의 알려지지 않은 땅' 남극에 대한 본격적 보고서. 1988년 제1차 남극과 학연구단 월동 연구대에 이어 1990년 제4차 연구대장으로 지금까지 남극을 네번이나 밟은 저자(한국해양연구소 극지연구소 부장)의 현장 체험이 생생하게 표현돼 있어 독자들의 눈길을 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 가운데 제1부 '남극의 모든 것'에서는 남극의 자연과 자원, 탐험사, 영유권 주장 등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 제2부에는 저자 자신의 남극 체험기를 일기형식으로 정리한 글을 담았다.

수문출판사 / A5신 / 406면 / 7800원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서

조성기 지음



四書의 하나로 꼽히는 동양고전 「孟子」를 재미있는 소설로 풀어쓴 책. 한문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한글세대들이 「맹자」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맹자가 한 말을 대화적 상상력으로 일일이 쪼개어 긴장감 있게 펼쳐” 나갔다는 것이 작가의 말이다.

“「맹자」를 읽는다는 것은 곧 잃어버린 자신의 마음을 찾아가는 여로에 선 것을 의미한다”는 작가 특유의 소설적 상상력에 용해된 「맹자」의 진수를 맛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이색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부제 '맹자와의 대화'가 가리키듯 맹자와 그의 제자들이 나는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한길사 / A5신 / 278면 / 4000원

마차를 얻은 대신 그들의 다리는 약해졌다

김희영 엮음



동서양의 고전 및 고금의 명언·명문장 가운데서 청소년독자들에게 삶의 지침이 될 만한 글들을 가려 뽑아 한데 모은 일종의 '名言 앤솔로지'.

'동양편'과 '서양편'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동양편'에는 「채근담」 「노자」 「논어」 「맹자」 「중용」 「대학」 등에서 발췌한 명문과 함께 한국과 동양의 명언을 수록했고, '서양편'에서는 「탈무드」를 비롯해 카네기 괴테 톨스토이 에머슨 알랭 로렌스 파스칼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등의 글이나 말을 실고 있다.

각편의 앞에 해당 저자나 저술의 개요를 소개하는 글을 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청아출판사 / A5신 / 358면 / 4500원

청산에 살리라

이항녕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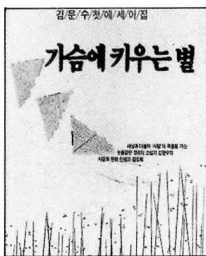
일제시대에 경남 하동군수로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협력했다는 '죄과'를 얼마전 하동의 한 강연회에서 공개적으로 고백, 잔잔하지만 신선한 파문을 일으켰던 저자(전 홍익대 총장)의 자전소설로, 1960년 「경향신문」 지상에 연재됐던 「청산곡」을 개제하여 이번에 다시 펴냈다.

고등보통학교 3학년시절의 동맹휴학에 적극적으로 가담치 못해 느끼던 열등감을 비롯해, 비극의 한국현대사를 살아온 한 지식인의 역정을 그려보임으로써 저자는 "염치를 모르는 우리의 정신풍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이 책을 다시 펴낸 뜻을 밝히고 있다.

동광출판사 / A5신 / 306면 / 4300원

가슴에 키우는 별

김문수 지음



196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문단에 나온 이래 「물레나물꽃」 「바람과 날개」 「어둠 저쪽의 빛」 등을 펴내며 '서민생활의 저변적 일상'을 주로 다뤄온 중견소설가의 첫 에세이집.

'시계바늘에 올라앉아' '그 푸르른 삶' '온갖 것이 실려 있는 수레' '잊혀지지 않는 바다' '자화상' 등 5부로 나누어 묶은 60여편의 에세이를 통해 작가는 올바른 삶을 위해 "가슴에 묻어 키우는 별들"의 빛을 잔잔하게 드러내 보인다.

답게 / A5신 / 342면 / 4000원

근사록

朱熹 외 지음 / 정영호 엮음



송나라 성리학의 정수를 집대성한 책이자 주자학의 입문서로 일컬어지는 「近思錄」의 편역본.北宋 성리학의 4대가 주돈이, 정호, 정이, 장재의 어록

이나 문집에서 발췌한 글들에 주자가 부연설명하는 형식으로 엮어져 있는데, 특히 사서삼경에 관한 언급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이른바 '新儒學'의 대표적 교과서로 꼽힌다.

원저의 체재를 따라 모두 14편으로 나누는 가운데, 역문과 원문을 병렬한 다음 어려운 字句 해설을 덧붙였다.

자유문고 / A5신 / 424면 / 6000원

자연도감

사토우치 아이 지음 / 김창원 옮김



청소년들의 야외학습 및 자연관찰 활동에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식물의 모든 것을 상세한 도판과 함께 소개한 책.

곤충류를 비롯해 조

류, 포유류, 파충류와 양서류, 어류와 조개류, 식물 등 자연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들의 특성과 습관, 관찰방법 등을 소개하는 한편, 필요한 도구나 카메라 촬영 요령, 적당한 옷차림, 노트 작성방법 등까지 다루고 있어 동식물 관찰의 현장지침서로서 쓰임새가 크다.

진선 / A5신 / 374면 / 4800원

列子の 지혜

박희준 엮음



중국의 諸子百家書 가운데 가장 풍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열자」의 기사에서 현대의 독자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줄 만한 우화들을 가려 뽑아 쉬운

말로 번역하고 엮은이의 해설을 곁들인 책. '天瑞' '黃帝' '周穆王' '仲尼' '湯問' '九命' '楊朱' '設符' 편으로 나누어 모두 90여개의 우화를 담고 있는데, 관중과 포숙아의 우정, 愚公이 산을 옮긴 이야기, 편작의 신통한 의술 등 동양고전들에 자주 인용되곤 하는 익숙한 우화들이 많다.

권말에는 열자의 생애를 소개한 글과 함께 참고도서목록을 수록했다.

대원사 / A5신 / 300면 / 4000원

신비한 우주의 세계

조정철 지음



'빅뱅' 이후 우주의 탄생부터 수많은 은하의 탄생과 별들의 세계, 인류의 시작과 우주탐험 등 우주의 과거·현재·미래까지의 최신 천문학 정보

를 어린이들이 알기 쉽게 풀어쓴 책.

모두 16장으로 나눈 가운데 우주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밖에도 블랙홀, 태양의 정체, 달의 비밀, 별자리에 얽힌 전설과 신화 등 어린이들이 밤하늘을 보며 품는 호기심과 궁금증을 풀어줌으로써 우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도록 배려하고 있다. 쉽게 볼 수 없는 사진들을 컬러로 실어 눈으로 보는 천문학도감의 구실도 한다.

대교출판 / A5신 / 200면 / 3500원

프랑스인의 아메리카회상

엘렌 푸레 외 지음 / 서정복 옮김



영국이나 스페인, 포르투갈인 중심으로만 알려졌던 종래의 아메리카 개척사에서 프랑스와 프랑스인의 역할을 새롭게 부각시킨 책으로, 저자들의 현장답사와 광범한 문헌조사를 통해 유럽과 아메리카대륙 관계사의 색다른 이해를 제공한다.

프랑스와 1세 치하였던 16세기 초반 작크 가르피에에 의해 처음 시도된 이래 300년에 이르는 프랑스인의 아메리카 개척사 및 그 흔적과 유산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권말에 주제별 참고문헌목록을 실어 연구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삼지원 / A5신 / 262면 / 5000원

밤을 달리는 아이

박범신 지음



「풀잎처럼 눕다」 「숲은 잠들지 않는다」 「불의 나라」 「황야」 등으로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 작가의 청소년 소설.

정부 기관의 중요한 직책에 있는 '국장 아버지'와 개인비서까지 두고 있는 '사장 어머니'를 둔 유복한 가정의 고교생 주인공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위험한 청춘의 강을 건너기 위해 겪는 어둠과 고통의 이야기를 그림으로써, 마침내 맞이하게 되는 삶의 소중한 불빛을 드러내 보인다.

햇빛출판사 / A5신 / 254면 / 3300원

論語 — 인간관계의 철학(1, 2)

윤재근 지음



「장자-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마라」로 노장철학의 독특한 해석을 보여주었던 저자(현양대 국문과교수)가 이번에는 「논어」를 대상으로 한 비슷한 작업의 결과를 두권의 책으로 묶어냈다.

제1권 '군자는 가슴에 꽃을 달지 않는다', 제2

권 '모르면 모른다 하는 것이 곧 아는 것이다'.

「장자」에서와 마찬가지로 「논어」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체험한 이야기들을 한데 모았는데, 「논어」 원저의 편차를 따라 글을 배열하고 각각의 말미에 관련있는 「논어」의 구절을 부기했다.

동지 / A5신 / 308, 334면 / 각 4500원

생물에세이

윤소영 지음



세포, 유전, 생명의 기원, 진화, 생태환경 등 다섯 부분에 걸쳐 생물학의 세계를 청소년들이 알기 쉽게 풀어 쓴 이야기 생물학. 경어체의 친근한 문장 속에 생명현상의 신비한 비밀들을 펼쳐 보인다.

“생물에 대해 알거나 공부한다는 것이 그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사실들을 외우는 것에 불과하다는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오해가 풀렸으면 한다”는 것이 저자의 말인데, 군데군데 적절한 사진과 그림을 배치해 읽어다가기에 지루하지 않도록 배려한 점도 특징.

동녘 / A5신 / 258면 / 3500원

한국여성, 우리는 누구인가 (상·하)

유안진 지음



수필가와 시인으로도 잘 알려진 저자(서울대 교수·아동학)의 한국여성론. 「한국전통아동심리요법」 「한국의 전통육아방식」 「한국전통사회의 유아교육」 등 저자의 기왕의 연구서들과 같은 연장선상에 놓일 수 있는 책으로서, 앞의 책들이 전문적인 학술서인데 반해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의 성격이 짙은 것이 특징.

“아동을 키우고 가르치는 모든 것이 다름아닌 한국여성의 연구라는 자연스런 사실”에 바탕을 두고 우리나라 여성의 사랑과 멋, 지혜와 용기에 관해 쓴 글들을 한데 묶었다.

자유문화사 / A5신 / 각 320면 내외 / 각 4000원

한자 이야기

우메이 찬 지음 / 선용 옮김



수천년동안 동양문화권의 공통문자로 군림해오며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친 한자의 생성원리와 발전과정을 어린이독자들이 알기 쉽게 동화로 풀어 쓴 책. 나중에 '백이' '숙제'가 되는 '샤오자(小甲)'와 '샤오이(小乙)' 형제를 주인공으로 하여 한자에 얽힌 이야기를 중국고대사와 관련시켜 흥미롭게 소개함으로써 한자에 대한 어린이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본문중에 한자의 상형원리를 밝히는 도판들을 풍부하게 수록한 점도 이 책의 특징.

현암사 / A5신 / 240면 / 3200원

서낭굿 탈놀이

서연호 지음



「산대탈놀이」 「황해도탈놀이」 「야유·오광대탈놀이」 「꼭두각시놀이」에 이은 저자의 「한국의 탈놀이」 시리즈 완결편. 우리탈놀이에 대한 현장

승적 연구를 토대로 각종 문헌자료와 최근의 연구성과, 비교연구학적 관점 등을 포괄하여 서낭굿 탈놀이의 예술성과 사회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하회별신굿탈놀이의 연극적 구조」 「巫劇의 원리와 유형」 등 4편의 논문이 풍부한 도판과 함께 실려 있다.

열화당 / A5신 / 174면 / 6000원

우리말의 예절

국립국어연구원 엮음



국립국어연구원이 조선일보사와 함께 1990년 10월부터 1년2개월에 걸쳐 공동으로 벌인 생활언어 표준화 작업의 성과를 한권에 묶었다.

‘가정에서의 호칭어·지칭어’ ‘직장·사회에서의 호칭어·지칭어’ ‘경어법’ ‘일생활

에서의 인사말’ ‘특정한 때의 인사말’ 등 다섯부분으로 나누어 생활언어의 바람직한 규범을 제시해 신문연재 당시부터 큰 주목을 끌었는데, 특히 일상생활에서 겪는 화법의 혼란과 어려움을 바르게 정리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책이다.

조선일보사 / A5신 / 434면 / 4500원

더이상 특별한 시험공부는 필요없다

三杉孝一郎 지음 / 홍유선 옮김



중고생을 위해 써어진 효과적인 노트작성법 안내서. “암기에 강한 학생보다는 정리에 능숙한 학생의 성적이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저자는 이 책을 통

해 모두 160항목에 이르는 노트작성 요령을 제시하고 있는데, 잠깐동안의 노트 연구로 노트 활용의 효과를 높이는 기술, 시험을 치르는데 도움이 되는 노트 작성의 예, 날마다 하는 공부와 관계있는 수업노트 사용법, 교과별 노트작성 요령 등이 소개돼 있다.

우리시대사 / A5신 / 184면 / 3500원